

† 찬미예수님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며 그분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이번 복음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세상적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도 살아 있다는 말씀을 뜻한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살리고 용서 하셨듯이,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 또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때 하느님은 현세나 내세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도 복음을 실천하는 기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녹)연중 제32주일]:**  
**11월 6일 복음 말씀**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27-38

그때에 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28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29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30 그래서 둘째가, 31 그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일곱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32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33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35 그러나 저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36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37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38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 11월 첫째주 공지 드립니다

### <지난행사>

#### 전례 봉사 - 10/30 주일

지난 주일 교중미사 전례에 봉사해 주신 김정호 이나시오 (1독서), 김현경 스테파니 (2독서), 전진영 베로니카 (해설), 그리고 뜨락회 형제/자매님들 (예물봉헌: 이제욱 바오로, 심혜란 에스텔) 감사합니다.

#### 컵세척, 연도 준비 도우미

주일 컵 세척과 연도 준비 셋팅을 도와주신 윤주현, 김현경, 차아름, 김정호, 이영재, 권창모, 홍상미, 전진영 하모니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방에서의 담소와 다과 후, 늦은 오후 귀가전에 소망방/사제관 앞 낙엽 청소로 앞뜰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신 분들~~ 비바람에 젖어 흠날리는 낙엽과 떨어진 과일로 미끄러운 마당이 덕분에 한결 깨끗해 졌습니다. 오랫동안 만나 낙엽 청소를 함께 도운 객재화 다미아노 형제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얼굴보기 힘들었던 분들의 깜짝 출연, 기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 (앞뜰 사진과 청소하는 모습 몇장 첨부합니다. 감도 맛있게 영글고, 낙엽도 아름다워 가을 향기가 물씬 나네요~)

#### 만남의 성경모임 - 10/29 토요일

조 마오로 수녀님과 루카복음 말씀을 나누는 만남의 성경모임이 지난 토요일(10/29) 성당 소망방에서 있었습니다. 내일,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바로 "오늘"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할 일들에 대해 복음 안에서 묵상하고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모임은 12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소망방입니다

---

#### 성시간: 11/3 목

매달 첫째주 목요일 저녁미사 (7:30)와 함께 성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바랍니다.

**성시간:** 예수성심에 대한 신심의 하나로 한 시간 동안 특별히 갓세마니에서의 예수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나"(마태 26:40)라고 한 성서 말씀에 근거한다. 성시간은 성체현시와

예수 수난에 대한 묵상, 장엄기도, 성가, 성체강복 등으로 이루어진다.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며 예수 성심께 위로를 드리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한다. 깊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성시간에 참여하는 이에게는 10년의 \*한대사가 주어지며, 1933년 교황 비오 11세는 성시간에 참여한 자로서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지향대로 기도하는 이에게 \*전대사를 허락하였다.  
(\*한대사, \*전대사: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view.asp?ctxIdNum=4383&keyword=%B4%EB%BB%E7&qubun=01&qubun=01>)

### 연미사 봉헌 - 11/6 (주일)

11월은 위령성월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와 회생을 바치는 달입니다. (참고: <http://blog.naver.com/ngam46/220849842104>)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11/6일 주일 (오전) 미사에 하모니가 최근 하느님의 곁으로가신 **김종운 세실리아 자매님**(최 주임 신부님 어머니) 과 **이현진 프란시스 형제님**(이영재 루카 형제 아버지)을 위한 **연미사를 봉헌** 합니다.

이 밖에도, 세상을 떠난 가족, 친구, 지인들을 위령성월 기도중에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마르코 복음 가톨릭 성서모임

이번주 금요일 (11/4) 모임은 없습니다. 다음주 금요일 모임은 유력하니 시간 비워 두세요. 추후 확인 공지 드리겠습니다.

### 교리상식 / 이것이 궁금해요~

신자분들이 제출한 궁금증에 대해 매 주일 공지시간에 신부님께서 간단히 답을 해 주십니다. 이번주 교리 상식란의 질문과 답을 함께 나눕니다. (주보)

**Q: 미사 때 서고, 앉고, 절하는 등 많은 동작들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서 있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있는 자세, 곧 준비, 감사, 존경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앉는 것'은 듣고 배우는 자세, '무릎 꿇는 것'은 겸손과 통회의 자세,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는 것' (절)은 예의를 갖추거나 축복을 받는 자세이며, '앞드리는 것' (부복)은 완전한 겸손과 간절한 애원을 드러내는 자세입니다. 말과 동작 하나하나가 다 표징이 되어 주님과 더불어 '한마음,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1 [미사 전례])

### 섬머타임 해제 - 11/6 주일


돌아오는 주일 (11/6)은 섬머타임이 해제되는 날입니다. 쉽게말해, 3월 13일날 날려버린 한시간을 다시 회수하는 날로, 한시간의 여유가 생기는 날입니다. ^^ 미사 시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영명축일

11/1: 모든 성일 대축일

하늘 나라의 모든 성인을 기리는 대축일로, 하느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날이며, 특히 전례력에 축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성인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기리는 날입니다 (출처: 매일미사)

### <리마인더>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최근 선종하신 김종운 세실리아 자매님**과 **이현진 프란시스 형제님**을 기도속에 특별히 기억해 주세요.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mailto:harmonycatholic@gmail.com)

## 2016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김정호 이나시오 [510-299-2297](tel:510-299-2297)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tel:1-510-553-9434)

Web: [www.oakcc.org](http://www.oakcc.org)

---

### 5 Attachments

